

“영업할수록 손해”...난방비 인상에 숙박업주 직격탄

미납 가스요금 전년비 43% 증가
광주 600여곳 중 폐업 50곳 추정
“지자체 지원책 실질적 도움 안돼”

“손님은 똑 끊었는데 요금이 이렇게 나오게 맞나요? 매달 적자라 도저히 납부할 방법도 없어요.”

광주시 서구 내방동에서 12년간 숙박업소를 운영해온 박 모씨(58)는 최근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전기 난방을 하는 박씨의 업소 지난 3개월간 난방비가 총 3,600만원 넘게 청구됐기 때문이다.

매일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지만 소

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최근 매출은 급감했다. 객실 56개를 운영하는 박 씨의 모텔은 3월 평균 평일 10개, 주말 25개 내·외로만 판매됐고 예약 문의도 끊긴지 오래다.

박 씨는 “숙박비를 올리면 지금보다도 손님이 더 줄어든 것 같고 폐업하고 싶지만 모텔을 인수하려는 사람도 없다”며 “요금을 낼 여력이 안돼 현재 미납요금은 2,300만원이 넘는다. 손님이 올수록 손해라 지금은 손님이 무서워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도시가스·전기요금 ‘폭탄’에 지역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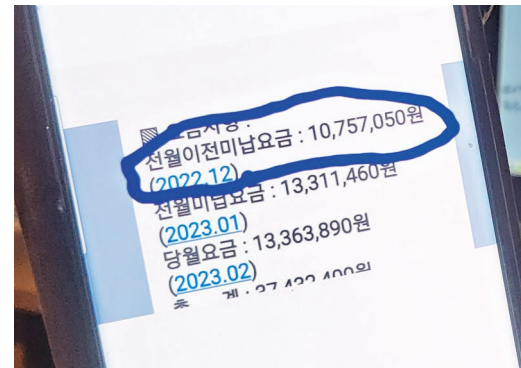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2021년 12월 톤당 892달러에서 지난해 12월 1,255달러로 40% 상승했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숙박·음식점업이 사용

하는 도시가스 영업용(1종) 동절기 단가는 1 MJ(메가줄)당 19.81원으로 지난해 14.36원에 비해 37.9% 인상됐다. 이와 함께 전기 요금은 1 kWh(킬로와트시) 당 13.1원 올랐다.

이러한 난방비 상승에 특히 숙박업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난방비 폭탄’에다가 봄철 숙박업소 비정수기까지 겹치면서 매출도 급감한 것이다.

이에 자영업자 대부분은 요금 납부 여력이 부족했고 실제 미납요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해양에너지가 공개한 지난 3월 광주·전남 영업용 도시가스 미납액은 12억 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달 8억 5,300만원에 불과했던 금액이 1년 새 43% 많아진 것이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간 연체료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거나 조건



서구 내방동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가 2,30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 미납 청구서를 휴대폰으로 보이고 있다.

에 따라 10만~30만원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숙박업주 사이에서는 제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분하다. 이미 정

구된 금액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분할납부 의미가 없고 연매출 2억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 등의 조건이 숙박업소는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폐업도 속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숙박업중앙회는 광주 등록 숙박업소 636개 중 50여개는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추산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현재 숙박업주들은 일반 근로소득은커녕 산더미 같은 적자를 떠안고 운영하고 있다”며 “계다가 아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지도 남아있어 성수기가 오더라도 상황이 쉽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지원책은 숙박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요금 체계 개편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승현 기자

중흥건설, 유니세프에 2천만 원 기부

중흥건설이 지난 15일 유니세프에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된 기금은 전쟁과 재난으로 위기에 놓인 어린이들의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사업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역할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치는 유엔 산하기구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유니세프를 한국에서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유니세프아동친화사회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어린이 권리를 증진한다.



중흥건설은앞으로 아프리카 등 일부 나라들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구호활동을 펼치는 유니세프에 기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흥그룹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양동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공유주방에서 진행된 ‘추억의 먹거리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이 요리연구가와 함께 음식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제공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확보 총력

한국농어촌공사가 가뭄으로 영농기 우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7%에 달하나, 전라도와 경상도의 남부지방 누적 강수량은 평년대비 62%로 기상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전복의 저수율은

57%, 전남은 52.6%로 평년 각각 76.5%, 68.2%를 기록했던 저수율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공사는 영농기 우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33곳에 대해 인근 하천의 물을 끌어다 저수지에 채우는 등 모내기철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로 봄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경진원, ‘양동시장 추억찾기’ 체험 프로그램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서구관내 18개동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내달 13일까지 양동전통시장 추억찾기 어르신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양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공유주방을

활용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양동전통시장 식재료를 활용한 추억의 먹거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요리연구가와 함께 진행한다. 참여대상자는 동별 경로당 이용 어르신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을 받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총 18회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양동전통시장과 관련된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통해 추억의 음식에 관한 장터음식 에피소드 등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푸드 앤 토크도 함께 진행한다. 체험 메뉴는 소고기 육개장, 통들깨 버섯나물 등으로 체험 후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포장 용기에 담아 가져갈 수 있게 했다. /오지현 기자

www.518run.com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23회

5·18 마라톤대회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다함께 땀시다!

일시

2023. 5. 20 (토)

장소

광주 승촌공원 운동장 (승촌보 내)

집결 08:00
출발 08:30

종목및참가비 > 5.18km 10,000원
10km, 하프코스 30,000원

접수기간 > ~ 2023년 4월 21일(금) ★현재접수중★

접수방법 > 전화, 팩스, 518run.com, 0518run@hanmail.net

문의 > TEL (062) 720-1099, FAX (062) 720-1020

TALK 카카오톡 ID : jndnnews

주 최
518기념재단
전남매일